

MIRROR

2003-2026



2003

66



99

4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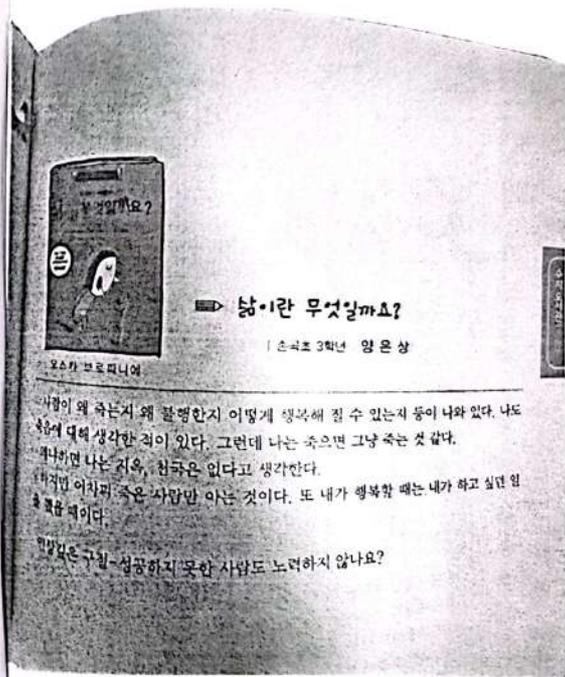


2004

66
0 애 -
99



2012





2014

풍경사진
눈 덮인 집

탈장갑
2013. 12. 1 16:59



우리집도 곳 저렇게 되겠조?
물론 저집처럼 멋진 집은 아니지만^^

210.0



2016



02
12 52



20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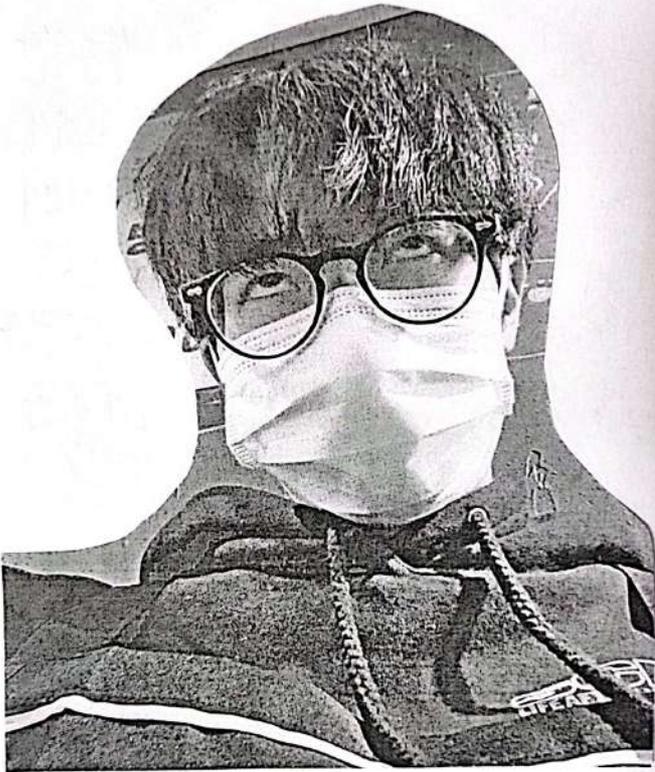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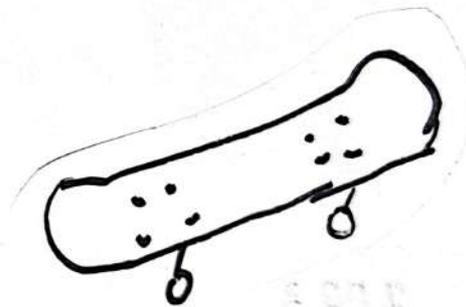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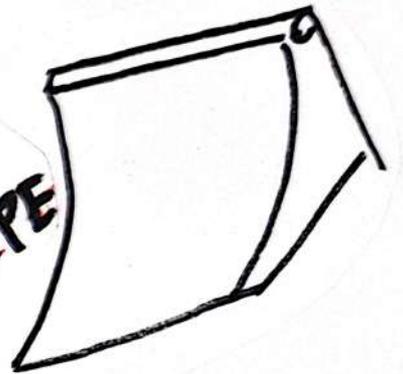
2021

하룻길엔 늘 흰색을 뵈면 죽는 게 분명했다.
흰색과 검은색의 연속 신음은 맞은 편에서
맞은 편으로 가는 한 발씩 한 발씩 건너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죽을 중에서 고리 못냈다
엄마는 오늘을 얼마나 반복라면 어른이 된다고 했나
털갈이하면 털미달이면 안 되는 이유는 알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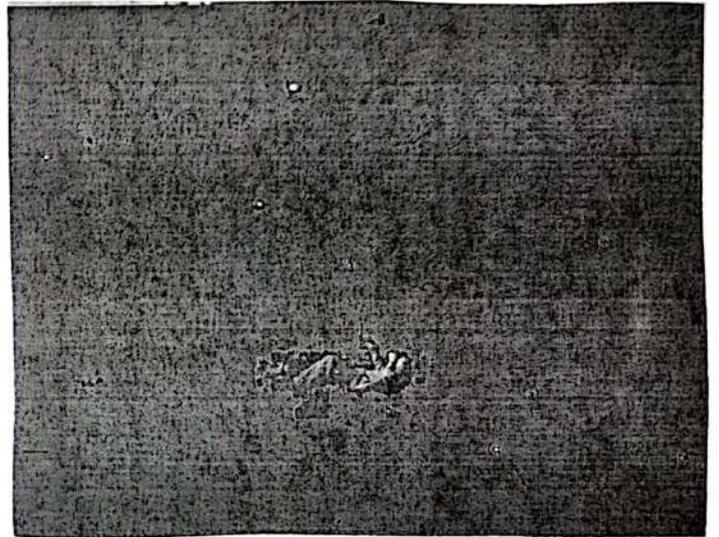
2022

HEAVEN
IS A
HALF-PIPE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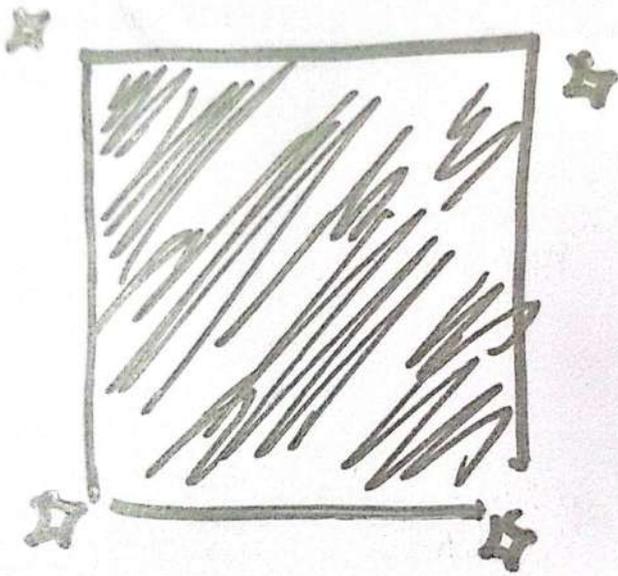




2029

영화관을 나올 때까지 계속 울었던 것 같다. 같이 간 동생이 담배를 피우다가 영화가 슬픈 건 알겠는데 형이 왜 그렇게 울었는지는 모르겠다고 물었다. 그래서 세월호에 대한 영화라고 말해줬다. 그제야 그도 생각에 잠겼다.

나는 자취방으로 돌아오는 전철에서 내내 이 영화의 의미에 대해 생각했고 예술은 남겨진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확신했다. 떠나간 사람의 입장에서 남겨진 이에게 "사랑해"라고 말해주는 것. 전혀 기억하지 못하던 사람에게 잠깐이라도 생각에 잠길 시간을 주는 것. 누군가를 평평하게 만들고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은 일이다.



2026 (NOW)

